

Title: the book of Titus – Sermon 10

Scripture: Titus Titus 3:12-15

Date preached: March 13th 2022

Scripture: Titus 3:12-15

12 When I send Artemas to you, or Tychicus, be diligent to come to me at Nicopolis, for I have decided to spend the winter there. 13 Send Zenas the lawyer and Apollos on their journey with haste, that they may lack nothing. 14 And let our *people* also learn to maintain good works, to *meet* urgent needs, that they may not be unfruitful.

15 All who *are* with me greet you. Greet those who love us in the faith. Grace *be* with you all. Amen.

12 내가 아데미나 두기교를 보내거든 그대는 니고볼리에 있는 나에게로 속히 오시오 나는 거기서 겨울을 보낼 작정입니다

13 아볼로와 율법학자 세나를 나에게 속히 보내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해 주시오

14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을 함써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보람된 생활이 될 것입니다

15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 그대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안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Review

Before we consider today's passage let's review what we looked at in our previous study. Last time Paul warned Titus about the need to keep people focused on what was important. They were not to allow themselves to become distracted by foolish, trivial or unimportant things. One of Satan's most often used tactics is to encourage Christians to become distracted or diverted and wander off the path. Sadly it is something he is very good at. It is therefore something that the church and individual Christians in every age need to be aware of. In the medieval world for example there was much debate surrounding the conundrum of, "how many angels could stand on the head of a pin?" It's hard to believe that wise and scholarly men devoted their time and energies to such nonsense, but they did. They allowed a debate over something that could never be ascertained or verified to distract them from what was truly important.

Today we also allow things that are not important to distract and divert us. So let me be very clear about what is important. Why did God institute the setting up of the church on earth?

The church's primary function on earth is to equip, prepare and train up disciples of Christ.

Naturally this is of benefit to the individual believer but it also prepares them to go out and share the gospel with others. Jesus Christ commissioned His followers to proclaim the joy of salvation and forgiveness of sin to all the world. So simply put, the church is to train up Christians to go out and share the good news. Everything else the church does is secondary to these functions. But sadly today the church, and Christians too often get caught up, or distracted by other less important things.

Paul knew that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Jews in his day was to get caught up in foolish debates or discussions. Such debates were not productive or helpful. If we have issues that cannot

be resolved it just leads to anger, frustration and division.

Therefore Titus was not to engage in such discussions personally, and he was also to strongly discourage others from wasting their time. Let us briefly go over some of the things that were diverting their attention. Paul spoke about four areas in particular.

1 Foolish disputes – This included arguments or discussions on issues that were simply not important. Recently I heard about a church dividing over the type of coffee they would stock in the coffee shop. Some wanted a strong blend others preferred a weaker blend. Is this an issue worth fighting over? Paul would say categorically, NO!

2 Genealogies – This related to the fascination certain people had with trying to find out where people were from or who they were related to. If you could somehow trace your ancestry back to Moses for example that made you a “super spiritual person.” This at least was what some people believed.

3 Contentions – This refers to people who stirred up trouble or were argumentative in the things they said.

4 Strivings about the law – This relates to debates about how the OT law now applied to Christians. Were there foods that could or could not be eaten? Were Christians obliged to follow other OT laws?

Paul reminds Titus that spending time on these issues is pointless and without merit. It draws us away from what we should be doing. He also gave him advice on how to deal with people who kept on bringing such things up. They were to be given two warnings. If the warnings were not heeded and the person did not repent and turn from their destructive behaviour they were to be ejected from the church. We might think this harsh, but it was for the good of the church. These people were caught up in sin and had willingly wandered from the path. They would not be content with being lost alone. They wanted to drag others along with them. This was why if they refused to repent they had to be removed from the flock.

Today we will see how Paul concludes his letter.

오늘 본문을 고려하기 전에 이전 연구에서 살펴본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바울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에 계속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디도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고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주의가 산만해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탄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전술 중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방향을 바꾸어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도록 부추기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그것은 그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세 세계에서는 "얼마나 많은 천사가 핀 머리에 설 수 있습니까?"라는 수수께끼를 둘러싼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현명하고 학자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에 시간과 정력을 쏟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허용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를 산만하게 하고 다른 방향으로 돌리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상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지상에 있는 교회의 주된 기능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개별 신자에게 유익하지만 또한 그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도록 준비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추종자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죄의 용서를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다른 모든 일은 이러한 기능에 부차적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자주 다른 덜 중요한 일에 휘말리거나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어리석은 논쟁이나 토론에 휩쓸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토론은 생산적이거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분노와 죄절과 분열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티투스는 그러한 논의에 개인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

했습니다.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켰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특히 네 가지 영역에 대해 말했습니다.

1 어리석은 논쟁 - 여기에는 단순히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논쟁이나 토론이 포함됩니다. 최근에 나는 교회가 커피숍에 비축할 커피의 종류를 놓고 분열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부는 강한 혼합을 원했고 다른 일부는 약한 혼합을 선호했습니다. 이 문제는 싸울 가치가 있습니까? 바울은 단호하게 NO!

2 족보 - 이것은 특정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는 누구와 관련이 있는지 알아 내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매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조상을 모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초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일부 사람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3 다툼 - 말다툼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4 율법에 대한 노력 - 이것은 구약 율법이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구약의 율법을 따라야 했는가?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다고 디모데에게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꺼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조언도 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경고를 주어야 했습니다.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사람이 화가하지 않고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들은 교회에서 쫓겨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혹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에 사로잡혀 가까이 그 길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들은 혼자 길을 잃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끌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화가하기를 거부하면 양 떼에서 제거되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그의 편지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볼 것입니다.

Introduction

I think that we have a tendency to skip over the end of Paul's letters. When it comes to his personal remarks or greetings we think they are of little value to us and have little to teach us. But I think Paul's closing remarks tell us something very important. One of the things they do is bring home to us that Paul was a real person who lived and interacted with real people. He was not just some super apostle who floated around on a cloud.

Paul worked with, loved and cared about the people he met. So we should not just pigeon hole Paul as being a genius theologian (he was), but also remember his humanity. He genuinely loved and cared about the people he worked with and for. So let's see how his letter to Titus ends.

우리는 바울의 편지 끝을 건너뛰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개인적인 말이나 인사와 관련하여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거의 가치가 없으며 우리에게 가르쳐줄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 중 하나는 바울이 실제 사람들과 함께 살고 교류한 실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구름 위를 떠다니는 슈퍼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만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사랑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을 천재 신학자(그가 그랬다)라고 단정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함께 일하고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Titus 에게 보낸 편지가 어떻게 끝나는지 봅시다.

12 When I send Artemas to you, or Tychicus, be diligent to come to me at Nicopolis, for I have decided to spend the winter there.

Paul closes the letter by giving Titus a set of instructions or directives to follow. It seems that Paul was sending either Artemas or Tychicus (*too-khee-kos*) to replace Titus on Crete. We know nothing about Artemas, this is his first and only mention in scripture. Tychius we do know a little more

about. He is mentioned on four other occasions in scripture all in connection with Paul. He was clearly someone Paul found to be trustworthy, loyal and dependable. He was with Paul in his first Roman imprisonment. He was also entrusted to carry the epistles from Paul to the Ephesians, Colossians and to Philemon. So clearly he was someone in whom Paul placed considerable trust.

So Paul, who is staying in Nicopolis for the winter is sending one of these men to replace Titus so that can rejoin Paul. There were a number of ancient cities with the name Nicopolis. The name means "city of victory" or "Victorious city." Most scholars think that this particular Nicopolis is the one on the western coast of Greece. Paul tells Titus to be **diligent** in coming. This is the Greek word (*spoo-dad'-zo*) and means to "make haste," to "be speedy," or, "to come quickly and in earnest." There was much work still to be done and so Titus was not to delay, or be slow in coming.

Sometimes we can be a little lazy or half-hearted in our Christian endeavours. We think we can put off till tomorrow what really needs to be done today. Let us not forget that the time is short, so we should be diligent in sharing the gospel and serving the Kingdom.

바울은 디도에 따라야 할 일련의 지침이나 지시를 주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그레테에서 디도를 대신하여 아르테마나 두기코(too-khee-kos)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Artemas 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그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언급입니다. Tychius 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과 관련하여 성경에서 네 번 더 언급됩니다. 그는 분명히 바울이 믿을 수 있고 충성스럽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첫 번째 투옥에서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바울에게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바울이 상당한 신뢰를 두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 니코폴리스에 머물고 있는 바울은 바울과 다시 합류할 수 있도록 디도를 대신하여 이 사람들 중 한 사람을 보냅니다. 니코폴리스라는 이름의 고대 도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승리의 도시" 또는 "승리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특정한 니코폴리스가 그리스 서부 해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부지런히 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헬리어(*spoo-dad'-zo*)이며 "서두르다", "신속하게" 또는 "빨리 그리고 진지하게 오다"를 의미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디도는 서두르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독교인의 노력에서 약간 게으르거나 마음이 아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PPT – verse 13

13 Send Zenas the lawyer and Apollos on their journey with haste, that they may lack nothing.

It seems that Zenas and Apollos were on Crete with Titus. It is quite possible that it was these men who had carried this letter to Titus. Zenas, who is mentioned only here in scripture was a **lawyer**. This means that he was either a converted Jewish scribe who was an expert in Mosaic law. Or an expert in Greek or Roman law. We know much more about Apollos. We met him of course in our study on the book of Acts (chap 18). You will remember that he was well spoken and mighty in the Scriptures. However he only knew about John the baptist and had not been properly informed about Jesus. He was updated on all that the Lord Jesus Christ had done by Aquila and Priscilla. Following this he went on to be a great servant for the early church.

Titus' instruction is to quickly send these men on their next mission. No doubt they were a great help and support for Titus on Crete, but there was more important tasks for them to complete. We should note here what Paul ask Titus to do. Not just to simply send them on their way but to give them all they needed. They were to be provided for, or equipped for their journey. By the term **lack nothing**, Paul means lacking nothing that is necessary or essential for the journey. Titus himself would not have been able to supply either the money or the provisions they needed. Therefore he was to encourage the church to help these men. It was an opportunity for the people to put the theory of "good works" into practice. We know that we are to do good things and help people. However too often although we believe this to be true it remains just a hypothetical theory. Good

widows, the sick and needy and providing for elders and those who would carry the gospel out into the world. They were not to make their good works a one off event but were to maintain their efforts over time.

Again there is much we can learn from this. Our Christian good works should not be limited to one or two charitable works a year. We should often be looking for ways to help and serve others. Every church will be different. But in whatever context we find ourselves we should be ready and eager to meet people's needs.

편지는 바울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 하나로 끝맺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하는 것의 중요성 바울의 관심은 믿는 자로서 우리가 게으르고 열매 없는 자가 되기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끼며 때때로 세상에서 선을 행해야 할 의무를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게으르다는 평판을 받은 그레테인에게 특히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가 그들에게 계속 선한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선행과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우리가 행한 어떤 행위를 통해서 결코 오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앉아만 있게 하라고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엡 2:10) 그래서 바울은 그레테인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습관을 갖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레타의 문맥에서 이것은 과부와 병자와 궁핍한 자를 돌보고 장로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할 자들을 돌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행을 일회성으로 만들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노력해야 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일년에 한두 개의 자선 활동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돕고 봉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열망해야 합니다.

15 All who *are* with me greet you. Greet those who love us in the faith. Grace *be* with you all. Amen.

Paul brings his letter to a close with a greeting. Firstly, Paul and all those who are with him send their greetings to Titus. Titus may at times have felt alone and isolated on the island of Crete. How comforting to read that Paul and many other Christians were thinking and praying for him.

Then there is a general greeting to all in Crete who still love and support Paul (us). The way Paul words this is I think a reflection on the fact that some on Crete had fallen away. There were some who no longer loved or sought to obey Paul's apostolic teaching. For whatever reason they had rejected Paul and had encouraged division.

The final words of the letter are a benediction. A benediction is in effect a blessing. As you know many churches bring the worship service to a close with a benediction by the pastor. Paul blesses the church and fervently hopes that God's grace be with them. You may remember back in chapter one that he opened his letter by wishing God's grace be upon Titus (Titus 1:4). So Paul opens and closes his letter hoping that God's grace be upon Titus and the Cretan Christians. It is a good reminder to us that we can do nothing without God's grace. No matter how talented, capable or powerful we may think we are, without God's grace in our lives we are nothing.

바울은 인사말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먼저 바울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들이 디도에게 문안합니다. 티투스는 때때로 그레테 섬에서 혼자라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바울과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

는 것을 읽으면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그런 다음 여전히 바울(우리)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그레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인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레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 바울의 사도적 가르침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거나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바울을 배척하고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말은 축도입니다. 축복은 사실상 축복입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은 1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디도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그의 편지를 열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딤후 1:4).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디도와 그레데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기를 바라며 편지를 열고 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Things to think about

As we bring our study of Titus to an end I want to take you back to sermon number one.

I spoke then about four reasons why we should still read Titus today. So as a way of bringing this series to a close let's look at those four things again. Why should we read and learn from Titus?

우리가 Titus 에 대한 연구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을 첫 번째 설교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그때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디도서를 읽어야 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이 네 가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디도서를 읽고 배워야 할까요?

1 It teaches us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within the church.

In chapter one of Titus Paul spelled out what Titus should look for in church leaders. The men he was looking for should be upright, respectable, self controlled, faithful and sober. Today we too should seek good men to lead and shepherd the church. God knows how important the task of leadership is within the church. That is why He gave us the insight and wisdom given in Titus.

디도서 1장에서 바울은 디도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가 찾고 있던 남자들은 올바른, 존경할 만하며, 자제하고, 충실하고 냉정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이끌고 목양할 좋은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리더십의 과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다. 그래서 디도서에서 받은 통찰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 It reminds us what leaders, but more generally all believers are to stand upon.

In Crete there were men who were wilfully leading people away from God's truth. They were teaching lies, causing rifts in families and damaging the church. Paul warned Titus of the danger of false teachers in the church. One of the things these false teachers were doing was encouraging foolish or pointless discussions. They were causing rifts over trivial non important things. As followers of Christ we are not to be distracted by things that are not important. We are to stand firmly upon the essentials of the gospel.

그레데에는 고의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가르치고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교회를 손상시켰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 중 하나는 어리석고 무의미한 토론을 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주의가 산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에 굳게 서야 합니다.

3 It reminds us of our roles and responsibilities within the body of Christ.

The church may be made up of individuals but when we come together we form one united body.

Just like the human body we must work together and in co-operation with one another. In chapter two Paul explained what was expected of different groups within the church. He laid out how older men, older women, young women, young men and slaves should behave. Each group has its own roles and responsibilities. All groups should act in a loving and thoughtful way that helps others within the church to flourish and grow. The reason we live like this is because we understand what God did for us. His grace towards us should teach us to live good lives that please Him and bring Him glory.

교회는 개인으로 구성될 수 있지만 우리가 모일 때 우리는 하나의 연합된 몸을 형성합니다. 인간의 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2장에서 바울은 교회 내의 다른 그룹들에게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연로한 남자, 나이든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노예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각 그룹에는 고유한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그룹은 교회 내의 다른 사람들이 번성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사랑스럽고 사려 깊은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은혜는 그분을 기쁘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4 It reminds us that God's gift of salvation does not end with us. We are to share God's goodness with the world.

God chose in His grace and mercy to save us. He did not save us and then expect us to do nothing. He saved us so that we might go on to be loyal and faithful servants. In chapter 3 Paul speaks on two occasions of the need for believers to maintain good works. The work to which we are called is varied and individual. Some may be called to great, world changing missions. Others may have more modest jobs to do. All kingdom work is of immense value and no one should be envious of what another Christian is doing. No one should feel that their small contribution is of less value or importance. God is pleased when we are fruitful. So all of us are to be faithful, hard-working and committed to what we are given to do.

And so our study of Titus comes to a close. I'm sure you would agree that this short letter packs quite a punch. I hope that you will go back and re-read it again. I also hope that you will prayerfully consider all the things Paul tells us. All of God's revelation to us is valuable, transformative and insightful. God meant us to have it for a reason. Paul's letter to Titus is no exception.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충성스럽고 충실한 종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3장에서 바울은 신자들이 선행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두 번 언급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은 다양하고 개별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선교 사업에 부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더 겸손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왕국 사업은 엄청난 가치가 있으며 아무도 다른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그들의 작은 기여가 덜 가치가 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열심히 일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의 티투스 연구는 끝이 납니다. 이 짧은 편지가 큰 힘이 된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가치 있고, 변혁적이며 통찰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유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이 디도에 보내 편지도 예외는 아닙니다.

